

'조선의 발렌티노' 입화와의 대화

근대문학사를 위한 노교수의 변명

김윤식

문학평론가·서울대 국문과 교수



"저를 찾든 찾지 않았든 저는 늘 이곳에 있지요. 교수가 700페이지가 넘는 《입화연구》에 나에 대한 모든 것을 밝혀 놓았소. 그런데 한가지 묻지 않을 수 없소. 그 저서의 시종 일관된 키워드가 '시인 입화' 임은 알겠으나 '시인과 정치'의 관계를 그토록 강조한 것은 지나친 처사 아니었소?"

입화.

여기는 대학원 한국근대문학 세미나실. 반백의 노교수가 이번 학기 세미나의 마무리를 이렇게 짓고 있었다.

노교수 — 이번 세미나에서 기본항으로 놓인 것이 '근대성'과 문학의 관련성이었음은 새삼 말할 것도 없습니다. 문학연구를 역사적 범주, 해석학적 범주, 수사학적 범주로 나눌 수 있다면 이 세미나에서 논의된 것은 역사적 범주에 속합니다. 세미나의 범위가 그토록 가슴벅찼던 것은 이런 사정에서 말미암았지요. 우리에게 있어 근대성이란 무엇인가. 이 물음은 언제나 가슴 설레게 하는 것. 비서구권에서 전개되는 근대성(화)이기에 서구의 근대성이 표준으로 작동함에서 오는 긴장감만으로도 숨겨왔던 것입니다. '이성의 힘으로 세계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는 명제가 그것입니다.

서구 근대의 보편성에 대한 의문

이 노교수의 세미나엔 카프문학이 알게 모르게 중심점을 이루고 있었다. 그가 이 나라 근대문학사를 바라보는 시선은 참으로 간단명료했다. 한국 근대문학이란 한국 근대사의 문학적 투영이라는 단세포적인 등가사상이 그것. 루카치, 골드만의 수준에 겨우 턱걸이를 한 셈이라고나 할까. 비서구권에서의

근대란, 서구의 근대를 보편성으로 상정했기에 (A)국민국가, (B) 자본제 생산양식을 제1명제로, 특수성으로서의 (C) 반제 사상, (D) 반봉건 사상, 그리고 (E) 분단 문제를 제2명제로 삼는 도식이었다. 이 도식 한가운데서 십자포화를 맞고 있는 장면이 카프문학이었던 것. 노교수가 그의 세미나를 한결같이 '통일문학사론'으로 끝마치는 것은 이런 사정에서 말미암았다. 그것은 제1명제인 '국민국가'의 건설 위에 선 논의에 수렴되는 것이었다.

노교수의 이러한 강의에 90학번 학생들의 눈초리는 점점 싸늘해져가고 있었다. 그들의 한쪽 손에는 서구의 해체주의 이론서가, 다른 한 손에는 오리엔탈리즘과 경도학파(京都學派)의 동북아론이 쥐어져 있음을 노교수도 안경 너머로 포러티 볼 수 있었다. 노교수는 또 느끼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이 여지없이 자기를 비웃고 있음을. 그들의 싸늘한 눈빛이 말하고 있었다.

학생 — 선생께서 서구의 근대성을 막바로 보편성으로 승인하지만 그것 역시 일종의 허위의식이 아닐까요. 해체주의란 일종의 시나리오인지 모르지 않겠습니까. 비서구에서의 근대화라는 시선이야말로 오히려 그 보편성을 의심할 수 있는 동기로 작동할

수 있지 않겠는지요. 서구라는 것도 별 것 아니지 않습니까. OECD까지 가입한 처지이고 보면 선생께서 그토록 매달린 그 '국민국가'라는 것도 끝장난 것이 아니었겠는지요. 국민국가가 끝장난 마당이라면 '통일문학사'란 것도 우습지 않겠습니까.

썰렁한 세미나실을 나온 노교수의 발걸음이 조금 휘청거렸다. 세미나실에서 연구실로 이르는 지척의 거리가 아득하게 느껴지는 것이었다.

연구실에 돌아온 노교수는 멍하니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머리속이 텅비어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어느새 어둠이 관악산 연구실을 에워싸고 있었다. 이때 노크소리같은 것이 들려왔다. 문을 열기도 전에 한 중년의 사나이가 서 있지 않겠는가.

약간 초췌하긴 해도 한때 '조선의 발렌티노'로 불린 미남형의 모습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는 사나이. 활동사진 〈유랑〉(1928) 〈혼가〉(1929)의 주역 배우이자 〈네 거리의 순이〉(1929) 〈우리 오빠와 화로〉(1929)를 쓴 카프의 최고 시인. 시집 〈현해탄〉(1938)과 평론집 〈문학의 논리〉(1940)를 쓴 카프문학 최고의 이론가이자 카프 서기장.

해방과 더불어 남로당 문학담당 최고 이론가이자 〈인민항쟁가〉(1946)를 쓴 인물. 남로당과 더불어 월북(1947)하고, 6·25와 더불어 안태본인 서울에 입성하고, 시집 〈너 어느 곳에 있느냐〉(1951)를 쓰고, 마침내 미제국주의 스파이라는 죄목으로 이승엽·조일명·이강국·이원조·설정식 등과 더불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최고재판소 군사재판부에 의해 만45세로 처형(1953. 8. 6)당한 사나이.

조선의 발렌티노'였던 입화와 만남

노교수 — 그대가 여기 왜 일어요?

입화 — 웬 일이라니? 노교수께서 저를 찾지 않았소?

노교수 — ……

입화 — 저를 찾든 찾지 않았든 저는 늘 이곳에 있지요. 이곳 서울에, 낙산 밑에, 그리고 남산과 관악산을 바라보면서. 서울 소격동 129번지에서 임창민(林昌民)과 장경녀(張慶女)를 부모로 하고 독자로 태어난 제가

보성중학을 중퇴하고 다다이즘에 휩쓸렸고 연극·영화에 뛰어들고 카프에 가입하고 일본유학에 나아갔고, 일본공산당원인 카프 동경지부의 이복만 밑에서 조직훈련을 받은 것이 1930~31년 사이. 이복만의 누이 이귀례(李貴禮)와 동거, 귀국하여 카프 서기장으로 나아간 것이 1931년. 카프 제1차 검거 사건(재건공산당 사건)에 연루, 3개월 유치장 살이. 딸 해란을 낳고(1931), 이현욱(본명 이숙희, 필명 지하련)과 결혼했고, 전주사건(1934~35)을 교묘히 빠져나갔고……

노교수 — 잠깐, 그런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항이오.

입화 — 하기사 교수의 700페이지가 넘는 《입화 연구》(문학사상사, 1989)에 저도 모르는 사항까지 밝혀져 있으니. 그런데 한가지 묻지 않을 수 없소. 교수께서는 그렇게 할 일이 없소? 물론 그 저서에서 시종일관된 키워드가 '시인 입화'에 있었음은 알겠으나, '시인과 정치'의 관계를 그토록 강조한 것은 지나친 처사가 아니었겠소.

노교수 — 지나치다고요? 다른 사람도 아닌 그대가 그런 말씀을 하다니! 정반대일 줄 알았는데…….

입화 — ……

노교수 — 스승도 길잡이도 없이 방황하던 전후세대인 저에게 말할 수 없는 참담함을 던져준 것도 그대였고, 형언할 수 없는 희망을 안겨준 것도 그대였소. 전자가 저 악명높은 '이식문학사론'이었다면 후자는 바로 해방공간에서 전개된 '민족·계급 모순 극복론'이었소. 제가 아직 젊었을 적, 김현 씨와 함께 《한국문학사》(1971)를 쓴 바 있지요. 그대의 식민지사관 극복에 그 초점이 놓였던 것. 그렇지만 그 과제를 충분히 이루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저희들의 공부 부족 외에도 식민사관 자체가 극복대상이라기보다 '공존 대상'이라는 사실에서 말미암았음을 뒷날에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대가 새삼 쳐다보아더군요.

입화 — 제 칭찬을 하는 것입니까?

노교수 — 그렇지 않소. 그대나 저나 현실에 번롱당하는 한갓 제한된 인간임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입화 — ……

노교수 — '민족·계급 모순 극복론'은 또

예영커뮤니케이션은
독자들이 건강한 문화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전 그 애가 좋아요

우정과 데이트로 고민하는 청소년을 위한 인간 관계 길잡이

김미영 · 조성진 · 배정주/A5변형
200쪽/8,000원(양장)

이 책은 우리 시대에 지친으로 널려진 감상적인 글이 아니다. 이성과 동성친구와의 우정의 현장을 차근차근 분석하면서 건강한 데이트의 향방을 실제적으로 제시하였다. 저자들의 실제 상담 경험과 조사 등을 바탕으로 청소년들의 가장 고민하는 주제들을 다루었다. 다양한 구성과 그림으로 실제적으로 청소년들에게 접근했다.



호칭과 지칭 예절

류재봉/A5신/424쪽
10,000원, 13,000원(양장)

이 책은 어떤 사람을 만나 어떤 호칭과 지칭을 써야할지 궁금해 하는 모든 사람이 쉽게 찾아 보고 익힐 수 있도록 쓰여졌다. 흔쾌해진 호칭과 지칭에 대한 바른 길잡이가 될 것이다.



창조적인 교회 주보 만들기

김승태/B5/308쪽/15,000원

국내 최초로 주보 만들기의 실체를 다룬 책. 교회 주보 담당자의 필수 지침서. 시대의 변화와 필요에 대해 교회가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과정 속에 창조적인 주보 만들기에 대한 지침서가 될 것이다.



웃음건강학

김응운/A5신/224쪽/6,500원

놀라운 웃음요법의 실체를 파헤친 감동의 최신 건강리포트. 이 책은 웃음 넘치는 생활, 웃음 가득한 인생, 건강한 하루를 여는 길잡이가 될 것이다.



인생의 즐거움을 발견하는 법

가와키타 요시노리/장경룡
B6(양장)/328쪽/7,500원

누구나 인생이 행복하기를 바란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 저자는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삶의 곳곳에 숨어있는 즐거움을 발견할 수 있다고 말한다.

“스승도 길잡이도 없이
방향하던 전후세대인
저에게 말할 수 없는
참담함을 던져준 것도
그대였고, 형언할 수 없는
희망을 안겨준 것도
그대였소. 전자가
악명높은 '이식문학사론'
이었다면 후자는
해방공간에서 전개된
'민족·계급 모순
극복론'이었소.”



김문식 교수

얼마나 가슴벅찬 것이었던가요 북쪽에서는
인한광이 한 발 앞서 있었지요 비서구 근대
화에서는 '계급해방 없이 민족해방 없다'는
명제가 거기 빛을 던지고 있었던 것. 그렇지
만.....

“그는 시인이었다”

임화 — 그렇지만이러니? 조금 짐작이 갑
니다. 제 운명을 말씀하고 싶으시군요 참담
한 '이식문학론'도 가슴 설레인 '민족·계급
모순 극복론'도 끝내 제 목숨을 구해내지
못했으니까.

노교수 — 마음 언짢게 할 뜻은 추후도 없
었는데, 송구스럽습니다.

임화 —

노교수 — 제가 쓴 《임화 연구》가 그 증거
입니다. 저는 시종일관 그대를 시인으로 묘
사했지 않습니까. '북조선이 형법 제78조와
65조 1항에 의해 사형, 제50조 1항에 의해
재산 전부 몰수라 한 것은 그에겐 아무런
의미도 없다. 그는 시인이었다' 라고 그 책의
결말을 삼았으니까요.

6·25조차도 그대에겐 무의미했던 것. 인민
공화국의 탱크부대와 함께 입성한 서울이
그대에겐 6·25였던 것. '무수한 깃발들/ 수
풀로 나누끼는/ 서울 거리는/ 나의 고향'《

서울), 1950. 7이라고 그대가 읊지 않았던가
요 '사랑하는 나의 아이야/ 너 지금 어느
곳에 있느냐'(너 어느 곳에 있느냐), 1950.
12)라고, 첫딸 '혜란에게' 그대는 외치지 않
았습니까. 이 도저한 선티멘털리즘, 이 구제
할 길 없는 서정주의, 이 인간냄새가 그대를
역사초월어로 이끌지 않았을까요.

임화 —

노교수 — 그대를 사형케 한 진짜 세력은
북로당이라는 정치세력과는 무관한 것이지
요. '서울 중심주의'에 대한 '평양 중심주
의'(한철야의 용어)의 통렬한 보복에 다름
아니었지요.

임화 —

노교수 —

이 장면에서 둘은 함께 말을 잃고 있었다.
침묵이 조용히 이 연구실을 에워싸는 것이
었다. 관악산 너머로 별 떨기 하나가 반짝
나타나기까지는. ❖

예영커뮤니케이션 100-616 서울 광화문우체국 사서함 1661
출판부 T.267-0161~4 출판유통사업부 T.325-7971